

"새로운 질서를 향한 지성인의 새로운 운동"

1968년 5월 소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한 윤정은 그 해 10월 야인野人으로서 유럽 등 5개국을 순방하던 중 10.23 스페인 프랑크 총통을 예방한 뒤, 프랑크 총통의 요청으로 「스페인 정치연구원」에서 교수 학생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과 국제간에 공통 과제에 대해 연설했다.

본인은 오늘 국제적으로 저명하고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 연구원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공헌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敬意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양국은 다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상호관계는 그다지 오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 민족의 생활배경은 많은 상이相違한 환경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유세계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동의 관심사와 공통된 과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 간에 공통된 과제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 많은 공통과제들 중에서 두 가지 점에 관하여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외부로부터의 도전' 과 지성의 타락이라는 '내부로부터의 도전'

분명히 오늘날 우리 자유인민들은 양洋의 동서나 이해관계상의 지역별이나 혹은 국가라는 구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들 '오늘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십 세기에 궁핍하여 이룩한 문명을 무서운 파괴로부터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인류의 구원久遠의 집념인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문명과 인류의 집념은 오늘의 현실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중대한 도전 앞에 당면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행위로 야기惹起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이요, 그 둘째는 지성의 타락으로 발생하는 '내부로부터의 도전'인 것입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되었을 때 자유인민들은 전쟁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과 평화를 꿈꾸며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침투에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공산주의자들이 분단된 한국을 전면적으로 침공함으로써 자유세계가 또 하나의 새로운 침략자의 정체正體에 경악하고 각성했을 때는 이미 유서 깊은 동구라파는 '철鐵의 장막'에 완전 차단되어 버렸고, 광대한 중국 대륙은 '죽竹의 장막'에 휩싸여 암흑 속에 가려져 버렸으며, 아프리카 대륙, 중근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구상의 도처에는 붉은 침략의 마수魔手が 도량跳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육되고 천문학적 숫자의 재산이 회진灰盡되면서도 간난艱難했던 대전大戰을 승리로 이끈 자유인민들의 희생의 대가는 공산주의자들 - 세계 적화야육에 가득 찬 더 무서운 침략자들에게 합리적인 활동무대를 마련해준 결과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한국의 격언이 생각납니다만, 이러한 전후戰後 양상의 불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

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 원인이 대전大戰 종말기와 종전 이후의 문제처리 과정에서 자유진영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오류誤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 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를 보여줘

선량한 자유진영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평화에 관한 한 자신들과 동질시同質視했거나 전쟁 종결을 서두르는 나머지 그 침략성의 정체를 간과看過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의 합법칙성이나 혹은 불가측성不可測性에 불구하고 1940년대에 서서 국제정세의 일대 전환기였던 1950년대를 예견하고 대처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를 보여주느니 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938년 뮌헨회담에서 범했던 과오는 1945년 알타회담에서 그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제시하였습니다만, 알타에서 자유진영 지도자들은 오늘의 자유인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전율의 씨를 뿌리는 오류를 되풀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1960년대에 궁하여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계속적인 반격을 가하여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 침투는 점차 저지되고 경쟁적 힘의 균형이 잠시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월남에서의 치열한 열전熱戰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의 후퇴로 결말을 지우느냐 불연不然이면 1950년대를 재연시켜 도처에서의 침공을 허용하는 또 다른 계기를 주느냐 하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전쟁에서 지불한 피의 대가로서 공산주의자들과의 유화宥和는 자멸自滅을 초래하고야 만다는 현명하고도 귀중한 교훈을 체득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는 무위재래無爲齊來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쟁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덕德이라는 것도 깨달았 습니다.

한국이 귀중한 부담을 무릅쓰고 월남에 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것도 여기에 그 논리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자유인민들은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와도 어디서나 가능한 최대한의 협력을 해야 할, 현 세대의 국제적 신의와 도리의 구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누구인들 전쟁 없는 평화, 번영되고 자유로운 세계를 원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자유는 무위재래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자만이 누리는 덕德

그러나 평화는 관념적으로나 적敵과의 유화宥和로는 절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 길이 멀다 하더라도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평화와 번영과 자유를 보장하는 길에 통한다는 최소한의 예견이 우리 양식良識에 영사映寫되는 때에는 우리는 독선을 버리고 현실에서 극력 협력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어제가 오늘을 가져왔다면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인류 구원久遠의 염원을 말살하려는 공산주의 이념이 어느 시기엔가 자체의 모순과 자유인민들의 부단한 대처에 의하여 자멸自滅할 때까지 우리는 이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군사·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하고 대항하여 그 자멸의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의 조짐兆朕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국가가 발달하면 할수록 공산화로의 소지素地가 닦여진다는 마르크스의 비전도, 또한 모든 사회가 불가항력적으로 움직여가는 궁극적인 목표지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결정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공中共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諸 모순을 어떻

게 보십니까? 또 소련과 중공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체코에서 일어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치체계의 혼돈과 방향에서 깨어나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지도상으로 각성해야

본인은 앞서 우리는 지성知性的의 타락으로 인한 내부로부터의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세대의 지성의 고민은 새로운 창조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성의 고민은 오히려 타락이라고 보아야 할 만큼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세대에 밀어닥친 고뇌를 스스로 극복해야 할 지성 그 자체가 타락한다는 사실은 실로 절망에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위 지성에 의한 반지성反知性으로의 경향을 지양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용기를 동원해야 합니다. 냉전 이래 오늘날까지의 혼돈 속에서 이지러진 가치체계와 정신적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放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나 책임감의 상실과 나태의 풍조가 퇴영적인 안일주의安逸主義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퇴폐하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도 그 의사표시에는 독선獨善이거나 때로는 파괴적 행동에 호소합니다. 정의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모든 관계에 대등성對等性 만을 보고 상호성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지성은 이와 같은 혼돈과 부조리를 방관하며 그것들을 오히려 합리화하려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창조가 지성에 의지한다면 지성의 타락이야말로 분명히 내일의 세계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교육성의 빈곤과 혼돈은 오늘의 세계가 공동으로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달을 능히 율律할 수 있는 인간다운 지성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인간은 과학으로 인

하여 파멸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새 세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옳은 지성의 동원이야말로 내일을 기약해주는 원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지도상은 각성된 지성에 의하여 극명하게 부각시켜야 하겠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지성인이 같이 지녀야 할 책임입니다.

어느 한 주의사상主義思想이 만능萬能일 수는 없습니다.

만인이 공명共鳴하고 같이 행동하는 지성인들에 의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야

난해難解한 문구를 나열하는 것이 지성의 척도는 아닙니다. 지성은 더 평이하고 보편성을 요구합니다. 만인이 공명共鳴하고 같이 행동하는 이해가 지성을 표징表徵합니다. 지성은 염전厭戰이나 평화를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전쟁 없고 파괴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진지하고 단호한 정의의 질서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여상如上한 이유들로 본인은 여기에서 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성들에 의한 새로운 운동의 전개를 제창합니다. 우리 노력의 목적인 평화와 번영과 자유의 참된 오늘과 내일을 위한 새 질서 정립에 자유인들은 국경과 인종과 장애를 초월하여 공동보조를 취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랄'로 서로가 가다듬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지성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내부의 도전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인간의 파멸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급기야는 굴복하여 인류의 목적 자체는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에서나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인류 구원久遠의 염원에 더욱 접근된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행복'이라는 생활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누려 살 수 있는 그날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향한 대열에서 같이 전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號走